

메시지 3,4

참다운 교회생활을 위해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이신 영광스럽고 탁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과 체험과 누림을 가짐

성경: 사 6:1-8, 요 12:38-41, 단 10:4-9, 11, 19, 9:23, 계 1:9-2:1, 7, 21:18-21

- I. 이사야는 낙심해 있었을 때 영광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보았다—사 6:1-8, 비교 5:20, 22:1, 대하 26:1-5.
- A.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는 이들,/ 어둠을 빛에 두고/ 빛을 어둠에 두는 이들,/ 쓴 것을 단것에 두고/ 단것을 쓴 것에 두는 이들에게 화가 있으리라!”라고 하신 주님의 경고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사야 시대에 있었던 악한 상황을 볼 수 있다—사 5:20.
- B.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백성의 반역과 죄악과 부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시자 왕이시자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리스도는 여전히 영광 가운데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다—사 6:1-5, 애 5:19, 계 22:1.
- C. 이사야가 본 분은 그리스도였다—사 6:5하, 요 12:38-41.
1. 요한은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생활과 일을 설명하면서, “이사야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기 때 문에 그분에 대하여 말한 것이었다.”라고 하였다—요 12:41.
 2. 보좌에 앉으신 영광스러우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보려면,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이사야의 경고의 말씀(사 6:9-10)에 주의를 기울여, 주님께서 우리의 내적 눈을 열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게 하심으로, 우리의 눈멀고 질병을 내적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요 12:40, 마 13:14-17, 행 28:25-27, 계 3:18, 4:2, 고후 3:16-18).
- D. 그리스도의 긴 옷은 주로 그분의 인성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인성을 통해 표현되는 그분의 미덕의 광채를 상징한다. 그리스도께서 긴 옷을 입으셨다는 것은 그분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이사야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인간 미덕들 안에서 표현된 신성한 영광을 지니시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사람이시다—사 6:1, 비교 겔 1:26, 22, 행 2:36, 히 2:9상.
- E. 이사야는 의에 근거한 거룩함을 지니신 그리스도를 보았다—사 6:2-3.
1. 스랍들은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상징하거나 대표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위하여 거기 서 있었다.
 2. 그리스도의 거룩함은 그분의 의에 근거한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의로우시므로, 그분은 속된 사람들로부터 거룩하게 되시고 구별되셨다—사 5:16.
- F. 이 이상을 본 결과 이사야는 종결되고 죽게 되었으며,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주한다는 것을 깨달았다—사 6:5.
1. 신약의 의미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하나님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요소와 생명과 본성을 받아들여 하나님으로 조성되는 것이다 — 비교 창 13:13-14, 갈 3:14, 마 5:8.

2. 하나님을 보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얻고 그분의 요소를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며 우리의 낡은 요소가 배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진대사적인 과정이 변화이다 — 고후 3:15-4:1, 롬 12:2, 빌 3:8.
 3.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우리 자신을 더욱 혐오하고 더욱 부인하게 된다 — 욥 42:5-6, 마 16:24, 눅 9:23, 14:26.
- G. 자신이 더럽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스랍들 중 하나가 제단에서 가져온 타고 있는 숯으로 정결하게 되었다.
1. 스랍이 타고 있는 이 숯을 (이사야의 입에) 갖다 댄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능을 상징하는데, 이 구속은 십자가에서 성취되었고, 심판하고 태우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신 ‘그 영, 거룩하신 분’에 의해 적용된다 — 사 6:6-7, 4:4, 비교 눅 12:49, 계 4:5.
 2. 하나님을 본 결과는 하나님에 의해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에 의해 깨끗하게 된 결과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선민을 그리스도를 사는 상태 안으로 이끄는 것이다. 이럴 때 하나님의 선민은 그분의 영광 안에서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의 거룩함으로 적셔지며, 그분의 의 안에서 살게 된다 — 사 6:6-8, 요일 1:7-9, 행 13:47, 빌 1:21상.

II. 한 사람으로서 지극히 보배로운 분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탁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은 다니엘에게 감상과 위로와 격려와 안정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 단 10:4-9.

- A. 그리스도는 포로 되어 있는 그분의 선민을 돌보시기 위해 세마포 겹옷으로 상징된, 인성을 지니신 제사장으로서 나타나셨다 — 단 10:5상, 출 28:31-35.
- B. 그리스도는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시기 위해 금띠로 상징된, 신성 안에 있는 왕의 직분을 가지시고 나타나셨다 — 단 10:5하.
- C.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귀하게 여기도록, 녹주석 같은 그분의 몸으로 상징되는 것처럼, 보배로움과 존엄함을 지니시고 나타나셨다. ‘녹주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청록색이나 황색 빛의 보석을 가리킬 수 있는데, 이것은 체현되신 그리스도께서 신성하시고(황색) 생명으로 충만하시며(녹색) 하늘에 속하심(청색)을 상징한다 — 단 10:6상.
- D. 그리스도는 또한 번개의 모습 같은 그분의 얼굴로 상징되는 것처럼, 그분의 백성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광채를 지니시고 나타나셨으며(단 10:6상), 햇불 같은 그분의 눈으로 상징되는 것처럼, 살피시고 심판하시기 위한 빛 비추는 시선을 지니시고 나타나셨다(단 10:6중).
- E. 그리스도는 광넰 못이 빛나는 것 같은 팔과 발로 상징되는 것처럼, 빛나는 일과 움직임 가운데 다니엘에게 나타나셨다(단 10:6중).

F. 그리스도는 무리의 소리와 같은 그분의 말소리로 상징되는 것처럼, 백성을 심판하시는 강한 말씀 가운데 나타나셨다(단 10:6하).

1. 세계정세 전체는 하늘들의 하나님에 의한 하늘들의 다스림 아래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만물 안에서 으뜸이 되시고 모든 것에서 첫째 위치를 얻으시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단 2:34-35, 7:9-10, 4:34-35, 골 1:15, 18, 계 2:4-5.
2. 그리스도는 우리의 개인적인 우주 안에서 반드시 첫째 위치, 으뜸의 위치를 얻으셔야 한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으뜸이신 분으로서 우리의 교회생활과 가정생활과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중심과 전부가 되셔야 한다— 골 1:17하, 18하, 3:17, 고전 10:31.
3.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중심(첫째)과 전부(모든 것)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서 환경을 사용하고 계신다— 롬 8:28, 골 1:18, 27, 3:4, 10-11.
4.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으뜸이 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으며, 이러한 사람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으뜸이 되시게 하고, 그분께서 모든 일에서 첫째 위치를 얻으시게 해 드린다— 단 4:26하, 35, 골 1:18, 3:4, 10-11, 시 27:4.

III. 요한은 그의 영 안에서 영광스러우신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금등잔대들 사이를 거닐고 계신 것에 대한 이상을 받았다(계 1:9-2:1). 이 이상을 통해 요한은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아들이로서 ‘발까지 닿는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신 것’을 보았다(계 1:13, 비교 10절, 4:2, 17:3, 21:10).

A. 사람의 아들은 인성을 지니신 그리스도이시고, 금띠는 그분의 신성을 상징하며, 가슴은 사랑의 상징이다.

1. 다니엘서 10장에서 그리스도는 신성한 일을 위해 허리에 띠를 띠심으로써 강화되었는데(출 28:4, 단 10:5), 이것은 교회들을 산출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장에서 그리스도는 가슴에 띠를 띠시고, 그분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산출하신 교회들을 돌보고 계신다.
2. 금띠는 그리스도의 신성한 힘인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며, 가슴은 금에 속한 이 힘이 그분의 사랑에 의해, 그분의 사랑으로 발휘되고 유발되어 교회들을 보양한다는 것을 상징한다.

B.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이로서 그분의 인성 안에서 교회들을 돌보시며 보살피신다— 계 1:13상.

1. 그리스도는 등잔대들의 등잔들을 손질하심으로 적합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보살피심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편안하게 하신다— 출 30:7, 비교 시 42:5, 11.
 - a. 주님의 임재는 부드럽고 따뜻한 분위기를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존재를 보살피며, 우리에게 안식과 위로와 치료와 씻김과 격려를 준다.
 - b.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의 임재의 보살피는 분위기를 누리면서, 보양하는 생명 공급을 받을

수 있다—엡 5:29, 비교 딤전 4:6, 엡 4:11.

2. 그리스도는 등잔대의 등잔들의 심지를 정돈하시면서, 우리가 빛을 비추는 데 방해되는 부정적인 모든 것을 잘라 내신다—출 25:38.

a. 심지의 검게 탄 부분, 곧 불뚝은 우리의 육체와 타고난 사람과 자아와 옛 창조물과 같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아 잘라 낼 필요가 있는 것들을 상징한다.

b. 그리스도는 교회들 사이의 모든 차이점(잘못된 행위와 결함과 실패와 결점)을 잘라 내 버리심으로, 교회들을 본질과 외양과 표현에서 똑같이 되게 하신다—비교 고전 1:10, 고후 12:18, 빌 2:2.

C. 그리스도는 가슴에 있는 금띠로 상징된 그분의 신성과 신성한 사랑으로 교회들을 돌보시면서 보양하신다—계 1:13하.

1. 그리스도는 육체 되심과 포함과 강화, 이렇게 세 단계로 된 그분의 충만한 사역 안에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이신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보양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여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는 그분의 이기는 이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2. 거니시는 그리스도로서 그분은 각 교회의 상태를 알게 되시며, 말씀하시는 영으로서 그분은 등잔대들을 정돈하시고 신선한 기름이신 그 영을 공급하시어 등잔대들을 채우신다—계 2:1, 7, 비교 속 4:12-14.

D. 주님의 일곱 눈은 불꽃과 같으며, 지켜보고, 감찰하고, 살피고, 빛 비춤으로써 심판하고, 주입하기 위한 것이다. 일곱(7)은 하나님의 움직임에 있어서 완성을 의미하는 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곱 눈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과 운행을 위한 것이다—계 1:14, 5:6, 단 10:6, 7:9-10, 계 2:18, 19:11-12.

E. 그리스도는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신 분이시다. 주님을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시는 하나님으로 앎으로써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그분의 임재를 확신할 수 있게 된다. 주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보다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 주는 것은 없다—계 1:17-18, 딤후 4:22, 마 1:23, 28:20, 출 33:14-16.

IV. 베드로는 그의 서신서들에서 지극히 보배로우신 그리스도와, 그분과 유기적으로 연관된 항목들에 대해 말한다.

A. 그리스도 자신이 그분의 믿는 이들에게 보배이시다—벧전 2:7.

B.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보배로운 돌은 그리스도 자신이다—벧전 2:4, 6-8.

C.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헛된 생활 방식에서 우리를 구속했다—벧전 1:14, 18-19.

D.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벧후 1:1, 4.

E.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모든 믿는 이들에게 할당해 주셨다— 벧후 1:1.

F. 우리의 믿음은 많은 고난을 통해 오는 시련을 통해 보배롭게 입증된다— 벧전 1:7.

V. 우리는 반드시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으로 구성되어 하나님의 개인적인 보물인 보배로운 사람들, 심지어 보배 자체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보배롭고 기적적인 구조물인 새 예루살렘이 되기 위한 것이다— 단 9:23, 10:11, 19.

A.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이 철저하게 바뀌도록 주님께 빛을 구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온 존재를 우리의 지극히 뛰어난 몫으로 계속 선택하게 될 것이다— 막 9:7-8, 빌 3:7-8, 고후 2:10, 4:7, 벧전 1:8.

B.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할 때, “네가 가치 없는 것에서 귀한 것을 분별해 내면 / 네가 나의 입이 되어”라고 한 예레미야의 훈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렘 15:19, 16.

C.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땅에 속한 모든 재물보다 더 귀히 여겨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말함으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이신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그분의 백성 안으로 분배할 수 있다— 시 119:72, 9-16, 엡 3:2, 8, 고후 6:10, 벧전 4:10-11.

D. 성경 전체의 결론인 새 예루살렘은 삼일 하나님 곧 신성한 삼일성이 세 가지 기본 요인으로서 그분께 구속받은 사람들 안으로 일해 넣어지시고 그들과 함께 짜이신 것이며, 세 가지 기본 요인 중에서 금은 성의 기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하고, 진주는 성의 문으로서 아들 하나님을 상징하며, 성의 벽옥 성벽은 영 하나님을 상징한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상이 필요하다— 계 21:18-21.

E. 우리가 그분의 소중한 현재의 임재 안에 살면서, 그분께서 우리를 그분의 보물로 누리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몫이신 그분을 누릴 때, 그분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건축하심으로 우리를 그분의 영적인 집과 왕들인 거룩한 제사장 체계가 되게 하셔서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성취하신다— 벧전 2:1-9, 3:4, 고후 2:10, 시 16:5, 출 19:4-6, 벧후 3:8, 11-12.